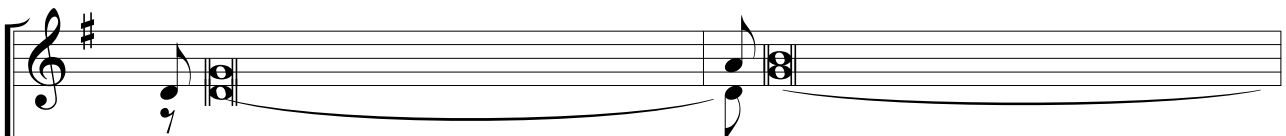


시편 137(136), 1-2. 3. 4-5. 6



(후렴)내가 너를 생각하지않는다 면, 내 혀가입천장에 달라붙으리 라.



1.바 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

시 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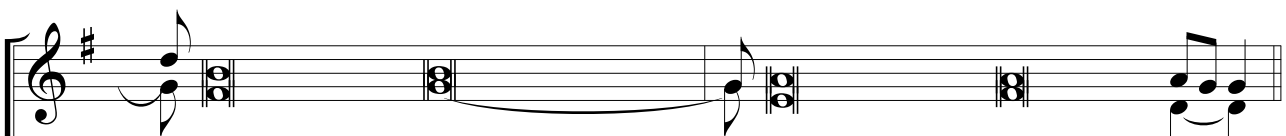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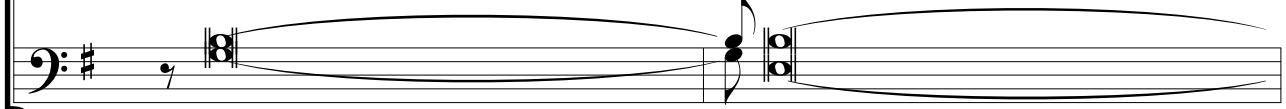
2.우 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
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.압 제자들이 흥을 돋우라
올려대는구나.

3.우 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

주 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?

4.내 가 만일 예루살렘

너 를 생각하지 않는다면,



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 리의 비파를 걸었 노- 라.

"시온의 노래를 불러라.

우 리에게 한가락 불러 보아라."

예루살렘아, 너를 잊는다면

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 리- 라.

너를 가장 삼지 않는다면
큰 기쁨으로내 혀가 달라붙으 리- 라.
입천장에